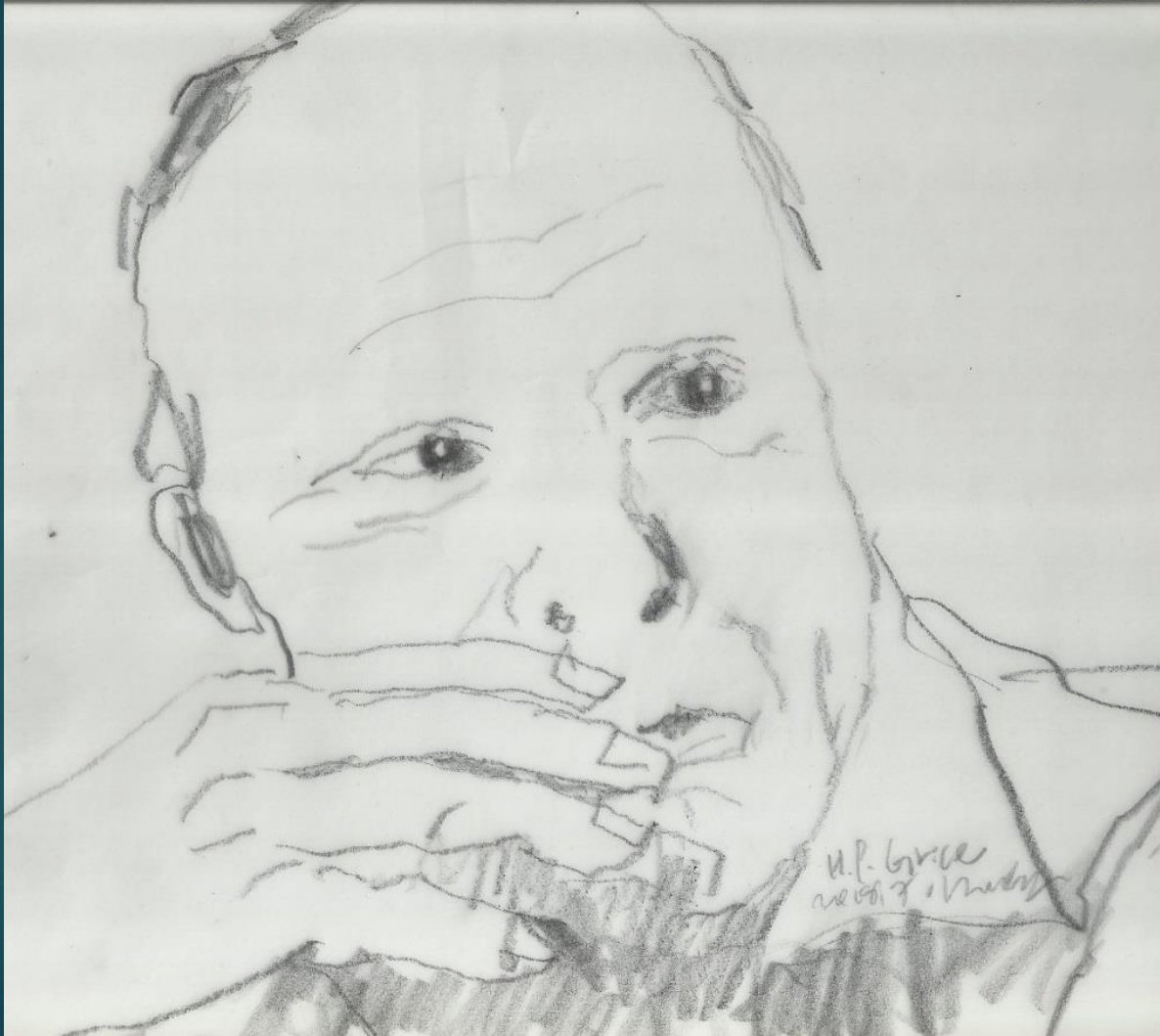


10. 그라이스의 대화함축




Herbert Paul Grice (WIKI)

Born	(1913-03-13) 13 March 1913 Birmingham , England, UK
Died	28 August 1988 (1988-08-28) (aged 75) Berkeley , California, U.S.
Era	20th-century philosophy
Region	Western philosophy
School	Analytic philosophy
Main intere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ilosophy of language• Semantics• Pragmatics• Metaphysics• Epistemology• History of philosophy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

“우리가 교환하는 대화는 ... 최소한 어느 정도는, 특징적으로 협동적인 노력에 의한다. 그리고 각 참가자들은 그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단일 목적이나 일련의 공통목적 또는 최소한 상호간에 수용된 하나의 방향을 인식한다 ... 각 단계에서 가능한 대화의 일부가 대화상 부적합한 것으로 제외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가자들이 (다른 사정이 같다면) 준수하리라고 기대되는 일반 원리를 대략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즉,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한 단계에서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가 수용한 목적 또는 방향이 요구하는 바대로 당신의 대화가 공헌하도록 만들어라.” (그라이스 1975: 75).

“인간은 '언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무한히 확장되는 사고의 외연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어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를 대신해 추론과 함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제들은 언어 경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론은 말하는 화자의 표면적 발화를 기초로 그 내면적 의미(또는 화자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식 ... 추론은 언어 경제성의 강력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제나 일정한 양의 추론이 수반된다.” (이재원 2003)



The maxim of quantity, where one tries to be as informative as one possibly can, and gives as much information as is needed, and no more.

The maxim of quality, where one tries to be truthful, and does not giv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that is not supported by evidence.

The maxim of relation, where one tries to be relevant, and says things that are pertinent to the discussion.

The maxim of manner, when one tries to be as clear, as brief, and as orderly as one can in what one says, and where one avoids obscurity and ambiguity.

“엄청난 과장으로 치장된 KBS ‘개그콘서트’의 속칭 ‘연변개그’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화 함축에서의 질의 격률을 어겼다고 비텍스트라고 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자는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어겼기 때문이고, 청자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시금 화자 또한 청자가 화자가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호 공유 지식 (mutual knowledge)/ 공통 지식 (common knowledge)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재원 2003)

고정함축

사오정 친구들이 카페에 갔다.

사오정 1: 난 우유.

사오정 2: 그럼 난 우유.

사오정 3: 그럼 나도 콜라.

사오정 4: 그래. 아저씨 사이다 네 잔 주세요.

사오정 웨이터: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엔

- 우유
- 콜라
- 사이다

무차가 없는데요.

질의 격률 위배

- ▶ 아내: 여보, 큰일났어요. 아기가 십 원 짜리 동전을 삼켰어요.
- ▶ 남편: 뭐 그까짓 게 다 큰일이요? 어떤 정치인은 정치 자금 수 천억 원을 송두리째 받아먹고도 아무 탈없고, 어떤 공무원은公款 수 십억 원을 침도 안 바르고 꿀꺽 삼키고도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남의 땅 수십만 평을 눈도 깜빡 안 하고 집어 처넣었는데도 뒤탈이 없는데, 그까짓 십 원 짜리 동전 하나 삼켰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소?

양의 격률 위배

- ▶ 한 여자가 공원벤치에 앉아 있고, 그 앞에 큰 개 한 마리가 누워있다. 이때 한 남자가 다가와 앉는다.
- ▶ 남자: 당신의 개는 물어요?
- ▶ 여자: 아니오.
- ▶ 남자가 개를 쓰다듬기 위해 만지는 순간 개가 그의 손을 문다.
- ▶ 남자: 아야! 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 ▶ 여자: 내 개는 물지 않지만, 그건 내 개가 아니에요.

태도의 격률 위배 (중의성)

- ▶ 조그만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조금 희한한 “카페라고 하기엔 좀 썩스럽지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페 주인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 받으러 경찰서를 가야 했습니다.
- ▶ 경찰: 이름? 나이? 카페명?
- ▶ 주인: 이 태권, 43세, 카페라고 하기엔 좀 썩스럽지만.
- ▶ 경찰: 규모가 작아서 창피하더라도 이름을 말해야죠. 카페명 ...!
- ▶ 주인: 카페라고 하기엔 좀 썩스럽지만.
- ▶ 경찰: 이 자식이 경찰을 우습게 알아.

관련성 격률 위배

- ▶ 의사인 신쁘리 씨가 수술을 마치고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 ▶ 의사: 웨이러!
- ▶ 종업원: 엡!
- ▶ (종업원이 굵적굵적 엉덩이를 굵는 것을 보고 직업 정신이 발동해서)
- ▶ 의사: 혹시 치질 있습니까?
- ▶ 종업원: 죄송합니다. 메뉴판에 적힌 것만 주문해 주십시오.

태도 격률 위배 (중의성)

▶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헛갈리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헛갈리는 표현들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손님: 선생님! **머리 좀 잘라 주세요.**

▶ 미용사: (큰칼을 손님의 머리에 들이댄다).

▶ 손님: 아아, 그게 아니고요. 머리 좀 쳐달라고요.

▶ 미용사: (손으로 손님의 머리를 후려친다).

▶ 손님: 아아!

▶ 이것 참 헛갈리는 표현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생님, 저의 답수룩한 헤어스타일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신 후, 가운을 살포시 입히고, 분무기를 칙칙 뿌린 후,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는 빗을 들고서, 저의 헤어스타일을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 (미용이 끝난 후)

▶ 미용사: 제가 지금 당신의 답수룩한 헤어 타일의 이곳 저곳을 살펴 본 후, 가운을 살포시 입히고, 분무기를 칙칙 뿌린 후,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는 빗을 들고서,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장동건이랑 비슷해요?

▶ 손님: 고마워요. 제 답수룩한 헤어스타일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신 후, 가운을 살포시 입히고, 분무기를 칙칙 뿌린 후,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는 빗을 들고서, 저의 헤어스타일을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얼마죠?

유머 텍스트의 일반적 특징

- 텍스트 규칙과 규범에 의해 매개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 기존의 사회 문화적 규범과 질서 특히 합리적 서사와 사실의 재현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적 텍스트(재현적 텍스트)의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고,
- 논리적이며 인과적인 서사진행을 통해 긴장을 유발하기보다는 그러한 긴장을 파괴하고 해체함으로써 웃음을 끌어내고,
- 결국 파편적 에피소드이며
- 비합리적 텍스트이며,
- 비전형적 인물을 내 세워 지나치게 과장된 상황을 연출하여 '그럴 듯하지 않는 세계'를 연출하며,
- 상투적 패턴

허무개그

▶ 허무개그 1

- ▶ 사람1: 앓! 저기 UFO!
- ▶ 사람2: 어디?
- ▶ 사람1: 아니네.
- ▶ 사람2: 어, 그래.

▶ 허무개그 2

- ▶ 사람1: 크하하하 이 형님이 검은 띠를 땀다.
- ▶ 사람2: 뺨이지?
- ▶ 사람1: 어, 그래.

▶ 허무개그 3

- ▶ 사람1: 야 비켜.
- ▶ 사람2: 싫어. 네가 비켜가
- ▶ 사람1: 어, 그래.

유머 텍스트와 대화함축: 결론

유머 텍스트를 화용론의 핵심 개념인 대화 함축에 기대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텍스트소들 사이에서 일견 보여지는 불일치와 단절이 결과적으로 유머를 발생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현정(2000)에서는 유머에서의 불일치는 대화 전제의 위배와, 대화의 원리가 되는 기본 격률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대화 전제 (conversational presupposition)는 대화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실들을 말한다. 유머 텍스트에서는 이와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전제를 표층차원에서 위배함으로써 불일치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웃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머 텍스트에서의 이러한 불일치와 단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해진 것' 이상의 것의 규명을 목표로 하는 대화 함축개념에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